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 탄력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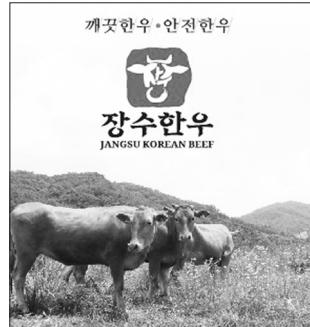
장수군의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 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핵심시책인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지난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열고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지구를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의해 전북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로 혁신기업 유틸리티,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군은 고부기기자 한우 생산을 목표로 종축·생산·가공·유통의 산업화 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해 '장수한우'를 국가적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다져갈 전망이다.

또한 2029년까지 △저메탄 종축·사료 기술개발 △실증단지, 농가 저탄소



장수한우

사양관리 △도축장·기공센터 저탄소 첨단화 △저탄소 유통·판매·수출 융복합화 및 모니터링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18% 감축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축산물 군수 인증 표시제'를 앞서 추진하고,

JCMS(장수한우 탄소배출 관리 시스

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축산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지역별 기준 거점을 연결해 연계형 저탄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구 조성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미스터플랜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을 통해 장수군은 한우 명산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며 "장수군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저탄소 축산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장수군이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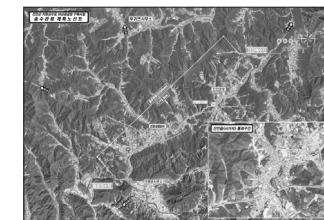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방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 추진

진안군은 지방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약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송수관로 15.5km, 가압장 1개소 등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월운 정수장의 가뭄, 수질 사고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를 비상 상황 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월운 정수장은 백운, 마령, 성수 등 3,340세대 6,600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취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 발생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뭄 및 집중호우로 원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우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22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번영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지난 8월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채소반 2기 입교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20일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채소반 2기 교육생 26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교식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교육생들에게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교육 목소개 및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스마트팜 정책 및 농업 경영의 이해'를 주제로 첫 교육이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농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에 발맞춘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이 꾸준히 양성되길 바



란다"며 "장수군 스마트팜 농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문화 체험 행사

진안군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대상으로 진안군 마이산과 전주 힌두마을을 탐방하는 문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4월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3년 2월 MOU 체결)에서 입국하여 권역별 공동숙소 4개소 (상전 신연마을, 백운 원촌마을, 마령 대동마을, 부귀 오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이 운영 주체가 되어 3개 농협(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이 협조해 간헐적 일일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를 증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북미술관 김황태문학관

원씨의 주어진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박금규 과장은 "김황태 청소년문화상 공모는 무주 출신 문학비평가 김황태 선생의 순수 문학 비평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뒷받침 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문학과 무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태 청소년문화상은 2019년도에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417편의 작품들이 접수돼 1회 때는 김선 학생(서울의 <무주로 가는 길>, 2회 안승언 학생(경찰의 <내가 그대를 떠올리면>, 3회 홍성준 학생(수원의 <내 소년 시절과 소>, 4회 이가을 학생(홍성의 <내 친구 빨빨이와 오목이>, 5회 한상원(서울) 학생의 <무주 제일전재>)에게는 상금 1백만 원을, 금상 1명(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에게는 상금 70만 원을 수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0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민들에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535건으로, 그중 영농기인 봄·가을철에 발생한 사고는 338건(63.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확기인 가을철에는 농업기계 사용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좁은 농로나 비탈진 경사로, 굽은 길을 이동할 때 추락이나 전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으로 △농기계 사용법과 주의사항 숙지 △사용 전·후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철저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작업 전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 착용 △읍주 후 농기계 조작 및 적기 방제 실시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달라."며 "군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대책 방안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